

## 광주·전남 행정통합 신뢰 구축이 최우선

인구 감소로 경쟁력 쇠퇴에도 현안 갈등에 행·재정력 소모  
시·도지사 만나 통합 메시지 내고 단계별 전략 실행 나서야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과 실행을 통해 광주·전남 간 신뢰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충청권 등에 밀려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안과 관련 빈번한 갈등·마찰로 인한 행·재정력 소모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을 제안한 광주가 선제적이면서 파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전남의 동의를 구하고,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도민에게 통합을 전제로 한 분명한 상생협력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기사 3면>  
17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시장의 광주·전남 행정 통합 제안과 함께 광주시가 전남도와 밀접 접촉에 나섰으나 만남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전남도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 정치권, 시도민 등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난감한 입장을

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과거 통합 논의에서 광주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따라서 당분간 소강 상태를 거쳐 공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광주·전남의 공동 현안에 있어 광주시가 보다 진전된 제안으로 전남도를 테이블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합 논의의 자체가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 각종 현안에 있어 새로운 방향의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1·2기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 통합 시도 및 논란 끝 실패부터 민선 6·7기의 빛기람혁신도시 발전기금, 한전공대 설립,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에 이르기까지 사안마다 갈등이 초래된 이번에는 정치적인 이해 관계, 광주·전남 간 이해득실 공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한 반성도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정치권, 시·군·구 등 기초자치체, 교수 및 전문가, 시도민 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설득하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청사진과 그 근거를 지역사회에 꾸준히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지사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 행정구역 분리 후 경제통합 노력, 경북도청 2016년까지 대구 준치, 대구경북연구원 체제 유지, 대구·경북 통합 신용항 부지 선정 등 광주·전남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출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 내의 충분한 공감대 아래 지난 1월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출범시켰으며, 오는 21일에는 각각 15명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일대일 대응 통합,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 통합, 상향식 통합, 지역 주도형 통합 등의 통합 원칙을 제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는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시도 23개 시·군을 2022년 상반기까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해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대구·경북은 지난 1981년 대구직할시 출범 이후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자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해득실을 떠나 행정통합의 절실함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도지사가 통합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 성과를 내게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최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민간공항 무안이전 반대 의견 수렴 유보

광주시민권익위 "시·도 상생 우선... 절차 다시 논의"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통합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유보했다.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도 상생을 전제로 한 결을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하고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시·도 상생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여론조사 착수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시민권익위는 또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시민권익위 교통 분과위원회는 한 시민이 제안한 민간공항 이전 반대 의견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실상 민간공항 이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2018년 8월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합의했던 상생 협약은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

으로 이전하고, 광주군 공항 이전에도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시장, 지사가 협약 이행에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날 결정을 광주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엔 "권익위원 구성 자체가 시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장의 뜻 자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다만 시민권익위의 상생협약 해석에 대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라며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양 시·도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번 추석 말고, 우리 다음 명절에 만나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귀향을 삼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 '우리 다음 명절에 만나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이 설치되었다.

## 코로나 감소세 ... 주말 또 한번의 고비

광주·전남 안정상황 계속 뻤  
20일 방역 하향조치 검토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여전히 많고,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6면>  
방역당국은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에 시민들이 물릴 것으로 예상하고, 마스크 쓰기과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주말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3명 이내로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0.45까지 낮아졌다"면서도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는 등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는 준 3단계 방역조치 연장을 발표했던 지난 10일 기준 1.01에 이르던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 전파시키는 사람 수)가 이날 현재 0.45로 뚝 떨어졌다.

이 시장은 "광주의 상황이 안정세이긴 하지만, 추석을 앞둔 이번 주말이 또 한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추석 전에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안정적인 추세가 이번 주말에도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한인 오는 20일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집합금지 대상 조정 방안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의 '코로나 블루' ▶6면  
복스·'한주기행' '예술의 쓸모' ▶14·15면  
야구는 KIA 최형우처럼 ▶18면

광주와 전남에선 지난 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되는 등 감소세. 광주 누적 확진자는 485명, 전남은 167명이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중반으로 증가했다.

결혼상담소와 요양시설, 교회, 공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환자 비중도 25%를 웃돌아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53명 늘어 누적 2만2657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176명) 이후 전날까지 100명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6일 만에 다시 중반대로 올라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도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